

## 국민의당 17~20·더민주 8~11석

선택 4·13 ㉠ 총선 D-2

4·13 총선전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최대 20여석을 차지하며 호남 패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10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이 분석한 것을 종합하면 호남의 상당수 선거구에서 국민의당이 우세를 보이면서 호남의 제1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호남 총선에서 전체 28석 중 국민의당이 17~20석을, 더민주가 8~11석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은 20여 곳을 우세로 판단, 나머지 7~9곳은 경합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판세는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녹색바람이 전지역으로 확대 중”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예상 의석수는 호남 20개를 포함해 35석”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5~6곳만 안정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지역은 경합이나 열세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 지역 여론조사 공표금지 시점(7일) 전까지 여론조사 추이는 동남갑·동남을·서구을·북구갑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고 서구갑·북구을·광산갑·광산을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후보가 경합하는 형세였다.

더민주 5~6곳만 안정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지역은 경합이나 열세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 지역 여론조사 공표금지 시점(7일) 전까지 여론조사 추이는 동남갑·동남을·서구을·북구갑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고 서구갑·북구을·광산갑·광산을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후보가 경합하는 형세였다.

전남 18.09% ... 1위  
전북 17.32% ... 2위  
광주 15.75% ... 4위

### 뜨거운 호남...사전투표를 전국 최고

2野 경쟁에 '녹색돌풍' 영향 ... 전국 평균은 12.2%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4·13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부쩍 높아지면서 막판 판세의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격돌하고 있는 '아권 뒷밭'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전체 선거인 중 총 4210만 398명 중 513만 1721명이 참여해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의 투표율이 18.9%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광역시는 가장 낮은 9.8%였다. 광주는 15.75%로, 전

남·전북 그리고 세종에 이어 4위였다.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 3개 시도 투표율이 상위권을 점령한 것이다. 사전투표율 상위 5개 지역구는 ▲담양·함평·영광·장성(21.93%) ▲고흥·보성·장흥·강진(21.58%) ▲영암·무안·신안(21.53%) ▲전북 남원·임실·순창(20.51%) ▲나주·화순(20.41) 등으로 모두 호남 지역구였다. 이처럼 호남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아권의 뒷밭에서 2개의 야당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중반부터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이 불면서 사전투표율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율에 따른 이해관계는 엇갈리고 있다. 더민주 5~6곳만 안정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지역은 경합이나 열세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 지역 여론조사 공표금지 시점(7일) 전까지 여론조사 추이는 동남갑·동남을·서구을·북구갑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우세를 보였고 서구갑·북구을·광산갑·광산을에서는 국민의당과 더민주 후보가 경합하는 형세였다.

“투표합시다” 캠퍼스에 그린 기표마크 지난 8일 호남대학교 학생 400여명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캠퍼스에서 기표마크를 그려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무릎 꿇은 문재인

“호남이 지지 거두면 대선 불출마·정계 은퇴”

뒤늦은 승부수 ... 민심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듯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후보 진영,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은 정치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 평가된다. 문 전 대표의 방문이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를 전제로 내세운 대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 카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은 란마져 놓고 있다.

더민주 측에서는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이 20~30대의 지지층 결집을 이끌고 40~50대에는 투표를 앞두고 신중함 선택을 고민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 이후, 눈에 보일만한 뚜렷한 민심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바닥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오는 12월 다시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이 일부 친문(문재인) 지지층의 결집은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풍을 몰고 왔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선거 막판, 광주를 찾아 조건부 대선 불출마 카드를 내놓고 당내 패권주의를 부정한 것이 오히려 반감을 샀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의 광주 방문이 진정한 ‘반성’보다는 ‘선거운’으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조건부 대선 불출마 카드에 ‘현실’보다는 ‘안락’ 성격이 짙어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8일 광주를 방문 “호남이 4·13 총선에서 (나에 대한) 지지를 거두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자기)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부족함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호남 출마·차별이라는 말은 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말이며 무뎠던 정부에서 호남 출마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광주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바닥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

### 광주시 공무원노조, 전공노 가입 가결 '파장'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안건이 총회를 통과해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에 따르면 시 노조가 지난 8일 오후 7시 전공노 가입 찬반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조합원 1288명 가운데 657명(51.0%)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1%인 546명이 찬성, '조합원 과반 참여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노조는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 노조는 전공노

소속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조원수가 많은 제1노조가 전공노에 가입한 광역단체는 아직 한곳도 없다. 행정부와 시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을 전제로 한 투표 자체를 위법행위로 간주해 무더기 사법처리 사태가 우려된다. 행정부는 투표를 주도한 노조 간부 등 1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광고주: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변화입니다

# 정권교체의 시작입니다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3번입니다!

## 3 국민의당